



김직승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인쇄업의 현실과 방향

**우리나라**의 인쇄산업은 일찌기 금속활자를 세계최초로 발명하였으며 이는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발명에 200년이나 앞서는 것으로서 우리문화의 발전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었음을 반증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등한시하여 현대에는 인쇄선진국의 반열에서 제외되었음은 물론 가까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결코 앞서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인쇄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되어진다.

최근의 인쇄산업은 컴퓨터의 도입에 따라 선진국과의 격차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를 줄여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인쇄기기는 전자, 화학, 공학의 결집체로서 현재 국내의 영세한 인쇄업체의 현실을 볼 때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없이는 기술개발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기할 수 없음을 자명하다.

우리나라 인쇄업계의 과제는 인쇄기기에 대한 개발이 쉽지않은 현실을 감안, 상대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큰 인쇄물 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 세계적으로 인쇄물시장 규모는 20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는데 우리는 1억달러에도 못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체가 99.7%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적합한 품목을 개발하고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의 정보제공 등 인쇄인들의 노력에 겸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한해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림에 따라 경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14,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체가 쓰러질 정도로 중소기업 수난의 한해였는데, 물론 인쇄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그간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열망이었던 중소기업청이 신설되고 자금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환영해 마지 않는다. 인쇄업이 중소기업지원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설되는 중기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는 내용중 우려되는 부분을 몇가지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지원제도는 그 종류만 해도 몇백가지가 될 정도로 다양하고 내용 또한 전문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문도 적지않다. 따라서 중소기업문제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의 미비함보다는 현실적인 정책 집행과정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개선에서 그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근한 예로서 언론보도를 통하여 중소기업 자금 확대지원 방안이 발표된 후 찾아가금 금융기관에서 실무자의 반응은 기대 밖이라는 경험담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이다. 아무쪼록 신설되는 중기청은

현실에 부합되는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중소기업인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기청의 행정조직과 기존 부처와의 업무 분장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들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다. 신설되는 중기청은 주로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기존의 통산부 관련조직은 정책 입안과 조정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지원정책 입안 건의는 통산부로, 그 후의 집행 요구는 중기청으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신설되는 중기청이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기능이 통산부와 유기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이 재경원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는 중소기업인은 많지 않다.

우리가 자금과 관련하여 원하는 것은 담보가 충분한 기업이 아니라 성장가능성은 충분하나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기술을 평가하여 신용대출을 과감히 확대하고 만에 하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않는 풍토가 정착되어야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중기청 초대 청장에 중소기업은행장 출신을 임명한 것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적격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은행 근무 경력만으로 기존의 두터운 관료조직을 이끌어 나가거나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관련부처와의 행정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충분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일부에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발로 뛰는' 자세를 임기 내내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유업종이나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축소 방향도 이번 기회에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간 중소기업청 신설이 중소기업을 무마시키기 위한 한철 선거용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말끔히 가시고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더불어 인쇄인들의 자가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당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초 일본 동경에서 한국, 일본, 중국, 태국의 아시아 4개국 인쇄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인쇄기술, 정보센터' 회의를 통해 세계시장의 무한경쟁시대에 따른 아시아 각국의 단합과 정보의 상호교환 및 현지생산 기지화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인쇄업은 산업적인 면 이외에도 정보전달 매체로서 문화산업의 특성이 있는데,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라 확신하며 인쇄선진국의 지원제도 및 정책을 모범으로 삼아야하며 인쇄인들도 경영의 고도화와 기술개발에 노력한다면 인쇄선진국으로의 영예를 되찾으리라 굳게 믿는다. ☐